

'5·18 암매장' 오늘 너릿재 인근 조사

사람의 두개골과 비슷한 물체가 땅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화순군 너릿재 인근에 대한 5·18 행방 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가 14일 시작된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부터 너릿재터널 인근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굴삭기로 이스팔트를 제거한 뒤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이뤄지며 하루에서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발굴 구간은 화순~광주 방향 터널 출구에서 30~40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사람 두개골 형태 땅속탐사레이더 감지 화순~광주 방향 터널 출구 30~40m 지점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지하 60cm 깊이(기반토와 도로 기반층의 경계선)에서 사람 두개골과 비슷한 반사파 현상이 감지됐다.

재단은 도로 1개 차선을 막고 가로·세로 4m 규모, 깊이 1m 가량 땅을 파내려가며 암매장 흔적을 찾는다.

너릿재 인근 공원 주차장에 대

한 발굴 작업도 동구청의 협조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발굴 조사를 벌인다.

도로(아스콘) 굴착·복구는 광주시가 담당하고, 현장 교통정리 등은 경찰이 맡는다.

너릿재 인근은 '5·18 직후 대낮에 군인들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해 마대 자루를 묻고 있었으며 자루 밖으로 나와 있는 시신의 머리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진 곳이다. 또 1980년 5월 당시 너릿재 터널은 7공수에 의해 사실상 2명의 행방이 사라지기도 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와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등에 따르면 7공수는 1980년 5월22일 너릿재 터널 입구에서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오던 2.5 트럭에 충돌 썩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당시 연행자와 사망자의 신원과 행방은 여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남규 기자

광주 원룸서 난방기구 과열 추정 불

13일 오전 11시6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5층 규모 원룸 3층 한 세대에서 난방기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9에 의해 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원룸 26㎡가 그을리고 전기 히터가 타 소방서 추산 300만~500만원 상당(잠정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원룸 큰방에 있던 이모(36)씨 등 3명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밖으로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히터 뒤쪽에 수건이 놓여져 있던 점과 "히터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놔두면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코드를 빼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행 혐의 대안학교 중·고교생 11명 입건

광주경찰청은 13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지역 모 대안학교 중·고교생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모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A(13·중1)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신했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동급생 1명과 선배 10명(중2~고3)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 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추행 의도는 없었다. 호기심에 신체 일부를 장난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부모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냈고, 부모가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행 과정에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취업실습 나간 특성화고 학생들 집단폭행 입건

전남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기도 평택으로 취업실습을 나갔다가 같은 학교 학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의 생활지도가 안이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경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으로 취업실습을 나간 J 특성화고 A군이 지난달 18일 오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학생 B군 등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B군 등은 학교 생활 당시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군을 식당 인근 공원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숙소로 A군을 불러 또 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일행과 A군은 취업실습을 다니는 회사가 다르며 A군은 이날 폭행으로 고막과 입술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J 특성화고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군 등 3명에 대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징계처분 수위가 낮고 학교 측의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연이어 했는데도 징정적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도 생활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J 특성화고 관계자는 "취업실습을 보내기 전 생활교육을 하고 나간 후에도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을 하지만 경기도 평택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치열한입시 전략 1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주최 '2018 정시 최종지원 전략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목포해수청 관내 항만 시설 30% 내진 '미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중 30%가 내진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목포항과 흑산도항 내 운영 중인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 44개소 중 13개소의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 중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흑산도항 여객터미널은 보강을 완료했다.

또 목포항 여객부두와 카페리

44개소 중 13개소 해당 2019년 목표 보강작업

1부두, 수협물양장, 내항인벽, 내항물양장, 용담물양장, 소삼학도물양장, 소삼학도 호안 등 8개소는 올 해부터 64억원을 투입,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보강작업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목포남항 호안과 흑산도항 중앙방파제 등 2곳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운물류 기반시설인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보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회장 골프장 여직원 폭행...전남청 광역수사대 이관

광주·전남지역 한 건설사 회장의 골프장 여직원 폭행과 막말 사건을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나주경찰서에서 관련 사건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건설사 회장 A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건을 이관받은 이유로는 "건설사 회장의 이른바 갑질 사건은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회장은 앞선 1일 오후 1시께 나주 모 골프장에서 여직원 B씨의 왼쪽 턱 밑을 손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A 회장이 네가 술집 여자냐. 쥐를 잡아 먹었냐. 천한 것들이 주둥이(입술)에 빨간 루주(립스틱)를 쳐 바르고 다니냐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회장이 2~3차례 더 때리려 했고 이를 피하자 '루주나 바르는 천박한 것들이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막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B씨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A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B씨를 찾아온 A 회장 측은 "자네가 잘 생겨 손으로 (얼굴을)스쳤지 때린

게 아니다. 잘 생겨서 루주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 가족 측은 "A 회장이 지난해 '내 속이 불편하다. 음식에 인공조미료(MSG)를 넣었냐'며 먹살을 잡기도 했다. 우리는 (돈이 아닌)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A 회장 측 관계자는 "폐쇄 회로(CC)TV를 보면 알 수 있다. 폭행도 아니고 장난친거다. 입술이 빨갛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정환 기자

지역광고문의: 062-222-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